

농진청,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충북지역서 확진·의심신고 증가에 따라 '주의'로 상향 조정... 도내에서는 도 농기원 등 중심 예찰 강화

충북지역에서 과수화상병 확진과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당국이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도농업기술원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예찰이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충북 충주지역 과수재배 농가의 과수화상병 확산과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남부지역 등 인접 시·군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경향이 예전에 비해 빠르고 대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충주지역의 2,455개 사과·배 과원(경영

체 등록기준)에 농촌진흥청 소속 식물병 전문가 68명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원은 신속한 매몰 등 긴급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예찰 전문요원들도 동일기간에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한다.

관계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하고, 과수수출단지도 조사를 병행한다. 농협(원예농협 등)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관한 홍보와 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다.

26일 현재 충주 31농가, 제천 3농가 등 충북 지역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 34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

으며, 확진 농가 외에 총주 26곳의 과수원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전수조사 이후 중앙-지방 간 협조 및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운영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차관)'에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차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조기발견을 위해 과수재배 농가의 자발적 예찰 강화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실행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원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과원 출입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초기 병징 발견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주회 이상 자가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초기 병징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전국 대표전화 1833-8572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전정(가지치기)·적과(열매숙기) 등 과원 내 작업을 위해 인력이 필요할 때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타 지역 농업인이나 작업자의 활용은 과수화상병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또한 가지치기 등 농작업을 한 뒤 잔재물은 땅에 묻거나 분쇄해 없애고, 출차가 분명하지 않은 모뎀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발견해 신속히 방제하는 게 중요하며,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과도한 당 섭취 인한 체내 당 독소 축적 억제

식품연, 옥수수 수염 추출물 '글라이옥살레이즈-1' 이용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체내 당 독소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식품기능연구본부 최상운 박사 연구팀이 옥수수 수염을 이용해 체내에 존재하는 당독소를 저감시키는 소재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당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 섭취 권장량은 성인기준 25g~50g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인 1일 평균 당 섭취량은 약 70g으로 권장량보다 높고, 12세~18세 청소년은 80g 이상 섭취하고 있다. 실험을 비롯한 당을 섭취하면 체내 흡수과정에서 독성유발물질인 메틸글라이옥살(methylglyoxal)이 생성되고, 이때 몸 안에서는 방어기작으로 글라이옥살레이즈-1(glyoxalase-1) 효소를 합성하여 메틸글라이옥살을 억제한다. 그러나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메틸글라이옥살이 과잉 생성되면 이러한 방어체계가 무력화 된다.

특히 메틸글라이옥살이 체내에 과다 축적되면 인슐린저항성, 혈관손상, HDL콜레스테롤 저해 및 피부염증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글라이옥살레이즈-1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체내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글라이옥살레이즈-1을 활성화시키는 효소로 독성유발 물질인 메틸글라이옥살의 과잉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신장 및 근육세포에 처리한 결과, 세포독성 없이 글라이옥살레이즈-1 활성 및 발현량을 증가시켜 메틸글라이옥살이 비독성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했다. 또한 실험용 쥐에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6주간 섭취 시켰을 때 신장 및 혈액에서 글라이옥살레이즈-1 활성이 증가했고 메틸글라이옥살 농도는 감소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팀은 옥수수 수염이 각종 차, 음료 제품으로 출시돼 인체에 무해함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향후 임상시험 허가 및 실용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연) 황진택 식품기능연구본부장은 "아직까지 당 독소 저해 소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독성이 큰 메틸글라이옥살을 직접 저해하는 천연소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옥수수 수염이 당 독소를 저감하는 신규 기능성소재로 활용되고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 등급을 받은 17개 중앙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였으며,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담당자 대상 사업비 운용설명회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소기업(50인 이하)의 성장사다리 구축 및 산학연 협업 기술혁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위 사업 중 하나인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사업(대학·연구기관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은 지난 2월부터 14개 기관 및 40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순조롭게 운영 중이다.

27일에는 지원과제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운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비 관련 규정, 비목별 집행 및 정산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며 혼동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28일 '거시기장터'

온라인 판매지원 활성화 교육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중인 전북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시기장터'에서 온라인 판매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250여명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서비스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신규 쇼핑몰 이용방법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가격정책·마케팅 등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진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거시기장터'는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다. 경진원은 개편 이후인 7월중에 다양한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오픈마켓 연동판 매도 확대해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국내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상시험

전북대병원 김민걸 교수팀

'GEN-001' 연구자주도

시험 계획 식약처 승인받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김민걸 교수(사진)팀이 국내 첫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의생명연구원 임상약리센터 김민걸 교수팀과 서울대병원 이승환 교수팀이 최근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인 'GEN-001'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 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간의 몸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람과 공생 관계를 이루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미래 바이오산업으로 떠오르며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남성 자원자 20명을 대상으로 GEN-001 단회 경구 투여 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물·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이다.

GEN-001은 지놈엔컴퍼니의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서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면역항암제(Avelumab)와의 병용 1/1b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인 제품으로, 지놈엔컴퍼니는 이번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GEN-001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대변에서 16s rDNA 시퀀싱을 통한 Lactococcus lactis의 양전율과 이상반응, 임상실험실검사, 활력징후, 신체검사, 심전도 검사를 통한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등이다.

전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임상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2019년 7월부터 최대 3년간 124억 지원)의 3세부과제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국내 첫 사례이다.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적정 용량 설정 기술, 안전성, 약물·약력학 평가 기술 및 내인적/외인적 요인 평가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김윤상 기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 전북도-전문건설협,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고려개발 본사를 방문했다.

본사 방문에서 전북도와 전북도회는 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업체 홍보와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강경덕 과장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할주로인 새만금사업에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도내업체의 많은 참여는 바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코로나19로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서로 상호협력으로 상생하자"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북도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및 한화건설 등을 방문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도 방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방지 등 건설관련 법령의 준수를 독려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20여개 공사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등 부단의 노력을 해왔다.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고려개발 본사를 방문했다.

앞선 지난 9월에는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인·허가 및 계약담당 부서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75개소의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촉구하고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했다.

향후에도 전북도 하도급 전담팀과 전북도회는 전북지역업체의 홍보와 하도급참여를 제고를 위해 도내에서 민·관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대형건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 준공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수양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사업이 작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 및 정비와 함께 광암저수지 수해구역(520ha)에 농업용수를 6월 1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했으며, 주요공사로는 전북 순창군 풍산면 우곡리, 전남 곡성군 옥곡면 합리리 일원 수해면적 520ha에 해당 L=256m, H=51.1m, 취수탑 1개소(H=25.5m, D=3.0m), 이설도로 1조(L=1.6Km, B=6.5m), 양수장 1개소(400hp×350mm×2대), 용수로 13조 L=26.40Km 로써 2019년까지 사업비 567억의 예산을 투

하림 맥시칸치킨, 닭볶음탕·찜닭 메뉴 출시

35년 전통의 맥시칸치킨(대표이사 문경필)이 새다란 메뉴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킨프랜차이즈 하면 양념치킨이나 닭강정 등의 메뉴를 떠올리게 된다. 맥시칸치킨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제품으로 닭볶음탕을 비롯해 찜닭, 순살로 만든 떡볶이 4종을 출시했다. 맥시칸치킨은 27일부터 전국 매장을

중심으로 기존 치킨 메뉴를 비롯해 또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닭볶음탕 등 신메뉴를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는 고객들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식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개발하게 되었다.

새롭게 선보인 맥시칸 닭볶음탕과 맥시칸 찜닭은 신선한 닭육수로 맛을 낸 소스를 사용한 정통 닭요리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이다. /역산=장양원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최대 2억원, 최저 연 2.51%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전북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코로나19 기업에 최대 2억원 한도, 최저 연 2.51%(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감면금리 0.5% 적용) 1년 거치 7년 원금 균등분할상환형태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 균등분할상환형태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업력 3개월 이상 전북 도내 소재 업체로, 신청일 기준 코

로나19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했거나, 경영에러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이다.

강팔문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기업에 대해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선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순창 농어촌공, 광암저수지 내달 농업용수 공급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 준공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수양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사업이 작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 및 정비와 함께 광암저수지 수해구역(520ha)에 농업용수를 6월 1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양지구 농촌융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했으며, 주요공사로는 전북 순창군 풍산면 우곡리, 전남 곡성군 옥곡면 합리리 일원 수해면적 520ha에 해당 L=256m, H=51.1m, 취수탑 1개소(H=25.5m, D=3.0m), 이설도로 1조(L=1.6Km, B=6.5m), 양수장 1개소(400hp×350mm×2대), 용수로 13조 L=26.40Km 로써 2019년까지 사업비 567억의 예산을 투

입하여 준공 완료하였다.

수양지구 광암저수지 저수량은 365만톤(5월말 현재 189만톤, 58%)으로 항구적인 수자원을 확보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천수답 및 가뭄상습지역을 해소하고,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종합 구축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영농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양지사 관계자는 5월말 현재 지사관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저수율 81.25로 평년 저수율 75%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일정을 3단계로 수립, 이양기까지 무강우시를 대비해 농업용수 소요량을 파악, 용수공급량을 조절·공급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35년 전통의 맥시칸치킨(대표이사 문경필)이 새다란 메뉴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킨프랜차이즈 하면 양념치킨이나 닭강정 등의 메뉴를 떠올리게 된다. 맥시칸치킨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제품으로 닭볶음탕을 비롯해 찜닭, 순살로 만든 떡볶이 4종을 출시했다. 맥시칸치킨은 27일부터 전국 매장을